

“플랜트시공업계, 새로운 패러다임 요구에 따른 변신 추구 노력”



대한설비건설협회 플랜트설비공사협의회 송기영 위원장

현재 플랜트시공업계의 상황은

플랜트 공사는 발전, 담수, 정유, 해양 및 환경설비 등 산업기반시설과 산업기계, 공장기계 등 종합생산시설이나 공장을 건설함으로써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산업연관효과를 유발하는 매우 중요한 업

종입니다.

지난해 어려운 대내외의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플랜트업계는 중동을 비롯한 유럽, 미주지역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650억달러의 해외 플랜트 수주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세계경기 침체와 국제금융시장 위축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플

랜트업계는 중동 및 개도국의 에너지, 산업설비 확충 계획과 각종 복구사업 등을 감안한다면 700억달러 수주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 일본 등 기존 경쟁국가 외에도 최근들어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인도 등 신흥국 건설업체들의 추격이 만만치 않아 대규모 플랜트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채산성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플랜트 규모가 대형화 되고 금융조달과 연계한 발주 증가 등 발주환경도 급변함에 따라 기존의 EPC(설계, 구매, 시공 일괄 수주) 계약만으로는 수익창출이 어려워지고 있어 사업개발, 지분참여, 건설, 운영 및 생산물 구매 등을 일괄적으로 담당하는 투자개발형 사업 참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종합건설을 중심으로 집계된 대외적인 추세일 뿐, 우리 플랜트전문시공업계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 건설사와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종합건설사의 저가수주는 고스란히 하도급업체에 전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해외인력, 자금, 장비 등의 조달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플랜트의 물량이 급격히 감소됨에 따라 내수 위주의 공사를 수행하는 상당수의 플랜트 회원사는 실적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플랜트업계에 종사하면서 요즘처럼 체감경기가 극도로 나빠진 적이 없을만큼 지금은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이처럼 총체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 업계의 최대 관건입니다.

이와 함께 플랜트 시공업계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거 플랜트 전문업계는 인력, 장비만을 동원한 단순기술 위주의 시공을 했으나 최근에는 종합건설사가 사업개발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수주를 함으로써 우리 전문업계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전문업계는 새로운 변신을 도모해야 하는 기로에 있습니다.

플랜트설비공사협의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올해의 사업 계획은

플랜트협회의 구성 및 역할

플랜트설비공사협의회는 대한설비건설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업종별 위원회로서 지난 1996년 4월 30일 발족된 이래 16년 동안 플랜트설비공사업계의 권익보호와 해외건설 및 플랜트 건설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비롯하여 플랜트 관련 조사연구 등을 통해 발전방향 및 플랜트건설 근로자의 고용촉진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플랜트협의회는 제7대 협의회 때까지 총 15명의 간사로 구성되었으나 지난해 제8대 협의회가 출범하면서 총 20명의 간사를 구성하였습니다. 최근들어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로 플랜트협회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간사들의 역할과 활동영역이 늘어나면서 간사의 수를 증원한 것입니다.

또한 제가 위원장이 된 후 격월 모임에서 매월 모임으로 전환하여 협의회 발 전방향 모색과 함께 정보교류 및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플랜트 관련 제도개선 및 경영환경 개선 노력

기계설비의 겸업제한이 올해 1월 1일부터 폐지되면서 기계설비공사에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기계설비공사를 주계약자공동도급으로 발주하였습니다. 얼마 전 한국서부발전이 토건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예가 있어서 플랜트 분야에서도 조만간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협의회는 플랜트 부문의 기계설비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플랜트업계는 지금 인력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력수급에 숨통을 틔울 수 있는 외국인고용허가제가 있으나 플랜트업계는 그림의 떡일 뿐,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지난 1993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산업연수생제도를 지난 2007년 외국인고용허가제로 통합하면서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 시행하였지만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인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발전소 등 산업·환경설비공사에서 기계설비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로부터 100% 하도급을 받아 직

접 시공하고 있는 플랜트전문시공업체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5개 전문건설업종 중 유독 산업·환경설비공사업만이 외국인고용 기회를 상실하여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기업활동에도 많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소하고자 협의회는 그동안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비롯하여 관계부처에 이를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경력 기술자의 인력유출 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업종 특성상 플랜트 전문인력은 현장 업무를 완전히 숙지해야만 현장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해외로 파견할 인력은 고도로 숙련된 기술력과 현장운영 능력이 요구됩니다. 이처럼 원활한 현장 업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20년 이상 투자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키워진 인재들을 자금력, 조직력, 대외인지도 등에서 전문업체보다 월등히 앞선 종합건설사가 스카웃하는 예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느 현장에 투입하더라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차장·부장급의 핵심 인력 유출이 매우 심합니다. 자금력, 인지도 등 여러 모로 종합건설사에 못미치는 우리 플랜트시공업체는 종합건설사의 인력 스카웃 횡포에 속수무책인 실정입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알토란처럼 키운 인력이 누출되면 회사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경영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렇다고 인력을 안키울 수도 없으니 우리 플

랜트시공업계는 결국 인재양성소인 셈이지요.

따라서 협의회는 플랜트 기술인력 육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협의회는 플랜트 분야의 우수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하여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상호 협약을 맺고 회원사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플랜트에너지공학과 편입생을 모집하였습니다. 실시 첫해인 올해 총 18명이 입학하여 산학열을 불태우고 있기에 뿌듯한 마음입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플랜트 회원사 소속 임직원들이 전문 실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처럼 협의회 노력 외에도 고용노동부의 해외플랜트 교육과정 및 전직·전환자 교육과정, 건설기술교육원의 원전플랜트 건설과정, 해외건설협회의 대학생 교육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플랜트 부분의 많은 전문인력 양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는 플랜트설비공사업계에 한말씀

해외공사는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정보력도 중요합니다. 일을 하고도 그 나라의 관습이나 제도 등을 몰라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원사 간 정보공유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매월 모임을 갖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

다. 협의회는 올해도 회원사간 정보교류와 단합도모를 위해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회원사의 권익향상을 위한 의견수렴 및 다양한 사업추진을 모색하겠습니다.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해외건설의 시공사례는 회원사가 많이 알아야 하기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월간 '설비건설'을 통해 다양한 시공사례를 게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나친 저가하도급은 기업 도산의 지름길입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먼저 적정공사비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정해돈 회장님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저가수주 근절 캠페인에 우리 플랜트업계도 적극 동참하여 저가수주를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들어 해외공사의 추세는 도면·자재·장비 등을 이용한 단순시공 위주에서 공사계획부터 도면·자재구매·소요인력·소요장비·협력업체 선정·시운전·공기단축방안·VE활동 등 실질적이고 확실한 경험이 반영된 마스터플랜 작성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외건설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마스터플랜 작성 능력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